

# 당국 금리단속에 예대금리차 ‘역대급’… 소비자 부담 가중

3분기 말 예대금리차 2.46%p  
2014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레고랜드발 대출금리 5% 돌파  
예금금리는 정부 인상자제 권고

예금금리는 떨어지고 대출금리는 오르면서 예대금리차가 8년 만에 최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예금 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한 반면, 대출 금리 인상에는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은 여파로 풀이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분기 말 국내 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는 2.46%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4년 2분기 2.49%p 이후 8년여 만에 최대 수준이다.

예대금리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당부하면서 주요 시중은행에서 연 5%대 예금 금리 상품이 다시 사라지고 있다.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에 정기예금 금리가 4.7%라고 표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대출금리는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영향으로 급등하면서 연 5%를 넘어섰다. 지난달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5.34%로 한달 사이 0.19%p 뛰었다. 이는 2012년(5.38%)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기업대출 금리도 5.27%로 지난 9월보다 0.61%p 뛰었다. 2012년(5.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폭은 1998년 1월(2.46%p)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신용대출 금리는 12년만에 7%를 돌파했다. 신용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3년 1월(7.02%) 이후 처음이며 금리 수준은 2012년 6월(7.89%) 이후 가장 높다.

이와 달리 지난달 5%를 돌파했던 예금금리 상품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업권간, 업권내 과당 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가장 먼저 5% 예금 상품을 선보인 우리은행의 ‘원(WON)플러스 예금’은 현재 4.98%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3일 이후 하루 만에 4.98%로 떨어진 이후 5%를 넘지 못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대표 정기예금상품인 ‘KBSTAR 정기예금’도 4%선으로 밀려났다. 지난 14일 연 5%대에 올라섰으나 전날 기준 연 4.7%로 떨어졌다. NH농협은행의 ‘NH올원예금’도 기본 금리만 연 5.1%였지만 현재는 ‘기본금리 연 4.8%, 우대금리 0.3%p’로 인하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금융당국이 예금금리 인상 자제에 나서는 것은 수신상품 금리 인상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확대에 이어져 대출금리를 끌어올린다는 분석에서다.

실제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 등의 영향으로 금융권의 자금 조달 경쟁

이 심화하면서 수신금리를 잇달아 높이자 시장 자금이 은행으로 몰렸다.

그러나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예적금 이자는 오르지 않고 대출이자만 계속 오른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인상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도 예금이자 오르지 않고 대출이자만 더 된다면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개입은 예금금리는 낮추고 대출 금리만 더 뛰어오르게 만들어 예대금리차가 커질 수 있다”면서 “대출이자만 높아진다면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급등하면서 예대금리차가 크게 벌어진 만큼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유동성 확보하라… 저축은행 이어 보험사도 금리 6% 육박

2금융권도 수신 경쟁 치열  
생보사 5%대 저축성보험 출시  
원금 손실에 유의해 계약 해야

자금 확보를 위한 2금융권의 수신 경쟁이 치열하다. 저축은행은 물론 보험사 또한 저축성 보험에 연 6%에 가까운 금리를 내세우고 있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 금리가 연 6%대에 근접 중이다. 저축은행 예금 금리는 지난달 6.5%까지 치솟았다. 금융권에선 연 6%대 정기 예금이 지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모처럼 맞이한 ‘금리 전성시대’에 저축은행의 정기예금과 저축성 보험 중 적합한 상품 선택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전일 기준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는 연 5.53%다. 1년물 기준 상상인

플러스저축은행의 ‘크크회전정기예금’과 ‘회전E-정기예금’이 연 6.1%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어 CK저축은행의 ‘정기예금’과 OSB저축은행의 ‘인터넷 OSB 회전식 정기예금’ 등이 연 6%의 금리를 적용했다. 지난달 19일 처음으로 연 6%대 정기 예금 등장 이후 지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저축성 보험 또한 등장하고 있다. 금리 인상기에도 2%선을 유지하던 저축성 보험의 금리가 빠르게 뛰고 있다.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푸본현대생명이다. 연 5.9%(5년물)의 금리를 적용한다. 출시 후 3일 만에 완판 기록을 세우며 자금 흡수에 나서자 생보업계 또한 경쟁에 불이 붙었다. 교보생명은 연 5.8%의 금리를 적용한 저축성 보험을 출시했다.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저축’과 ‘보

험’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상해와 질병에 관한 보장은 물론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하면 예금 수령 시 부과하는 이자소득세도 면제 받는다. 중·장년에 접어들기 전 목돈을 만들고 싶다면 저축성 보험 또한 고려 항목에 넣을 수 있다.

다만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기 전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통상 5년 납입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정기 예금보다 납입 기간이 길다. 또한 계약사항에 따라서는 중도 해지 시 납입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개인의 생애주기마다 다르지만 대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정기 예금과 저축성 보험에 분산 저축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공무원 등 안정성

이 높은 직업이라면 보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정기 예금 비중을 늘리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2금융권의 금리인상은 각 사별 건전성과 여력에 따라 상승곡선을 그릴 전망이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을 향해 예금 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쓴소리는 은행권이 시중자금을 흡수하고 있어 2금융권의 부실을 우려해서다.

또 다른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건전성 기조는 여전하다. 당국의 유의 사항을 지키면서 최대한 소비자 편의를 늘리려고 한다”며 “비대면 정기 예금상품이 늘어나는 만큼 이자 생활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삼 기자 kimsan119@



우리금융그룹은 재단법인 티앤씨재단과 함께 푸드트럭으로 결식위기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 /우리금융

### 우리금융-티앤씨재단 푸드트럭 활용 사회공헌 활동

우리금융그룹은 재단법인 티앤씨재단과 함께 푸드트럭을 활용해 결식아동들을 찾아가 식사를 제공하고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은 취약계층 성장기 아이들의 균형 잡힌 영양소 공급을 위해 푸드트럭을 이용해 보육원, 다문화가정 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식사와 간식은 물론 레크리에이션까지 제공하는 활동이다.

이번 사업은 내년 초까지 진행되며 사회복지시설 아동과 시설 종사자 약 2200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주기적으로 시설에 방문해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고 즐거운 게임도 함께하며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유대감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시락과 반찬을 지역 상인들을 통해 구매하고 상인들이 직접 현장에서 간식 조리를 담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매출증대에도 기여하는 등 지역 경제의 선순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아이들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보석 같은 존재”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발굴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

## 강신숙號 수협은행, 신임 사외이사 4명 선임

제 6차 임시주주총회 개최  
오규택·남봉현·이석호·최형림

강신숙 Sh수협은행장과 함께 합을 맞춰 은행을 이끌어 갈 사외이사가 정해졌다.

Sh수협은행은 서울 송파구 오금로 수협은행 본사에서 ‘2022년도 제6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사외이사 선임에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신임 사외이사는 ▲오규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남봉현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 ▲최형림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등 네 명이다.

오규택 신임 사외이사는 연세대 경제



(왼쪽부터)오규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남봉현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 최형림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Sh수협은행

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와 영국 버밍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역임했다.

남봉현 신임 사외이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대학원과 미

국미주리주립대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중앙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협동조합정책관, 국고과장,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인천항만공사 사장직을 수행했다.

이석호 신임 사외이사는 미국 템플대

에서 보험경영·보험계리학을 전공했다. 이후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금융연구원 보험금융연구센터장, 기획협력실장, 보험·연금연구실장 등을 거쳐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최형림 신임 사외이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동아대 경영대학 학장,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수협중앙회 비상임이사 등을 거쳐 현재 부산광역시 정책고문과 동아대 명예교수직을 맡고 있다.

신임 사외이사의 임기는 오는 2024년 11월 30일까지 2년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신임 사외이사들은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수협은행의 경쟁력 제고 및 위상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삼 기자 kimsan119@